한반도 환경협력 연구 : 산림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새싹(숲과나눔 풀씨연구회)

1. 서론

본 연구는 한반도 환경협력에 관한 모든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환경협력 동향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각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반도 환경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이고, 관련 연구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선 1차 자료를 확인하여 북한이 바라보는 환경의 개념과 북한의 환경법제를 확인한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환경협력 분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한반도협력 방안을 제언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과거 진행되었던 남북 간 산림협력 사례를 수집 및 정리한다. 남북 간 산림협력은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꾸준히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사례를 정리하고, 각 사례들의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여 향후 한반도 환경협력 방안에 제언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2. 본론

1) 이론적 배경

산림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인식은 법제도와 신년사 등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북한은 1992년 처음 산림법을 제정하며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산림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항목들을 규제하였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부터는 신년사를 통해 산림보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북한에서의 산림보호는 단순한 나무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발전과도 연계되는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활발한 남북산림협력과 연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산림과학기술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2000년대부터 산림과학기술 관련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로동신문 분석 결과 '산림복구'와 관련된 기사가 다수 게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90년대부터 치산치수를 통한 재난재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북한의 산림정책은 2000년대 이후 과실수를 비롯한 경제림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김정은 시기에는 장미 등 각종 조경수 조성 작업을 통해 공원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산림협력 사례

(1) 남북회담

산림협력은 남북회담을 통해 구체화되며 기본 방향이 정립되었다. 지난 2002년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산림분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묘목 제공이 주요 의제였다. 남북산림협력은 초기에는 산림보호를 위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의 부족한 산림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임진강 수해방지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며 묘목 제공, 양묘장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산림협력이 논의되었다. 초기 남북산림회담은 경제협력, 농업협력 등을 위해 진행된 회담에서 하위 주제로 다루어지며 독립적인 의제로 논의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독립적인 회담이 이루어졌고, 산림협력의 분야도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8년에는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등을 포함하여 총 6번의 남북회담에서 산림의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산림협력만을 위한 회담인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두 차례 진행하며 그 위상이 과거와 달리 증대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남북환경협력이 산림협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환경협력의 사례를 통해 한계 및 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2) 해외 환경협력 사례

UN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FTS(Financial Tracking Service, 재정추적서비스)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각 주체별 대북 산림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총 16번의 대북 환경 및 산림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우리나라의 지원을 제외한 총 15번이 국제협력 사례로 파악되었다.

기본적으로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들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이 홍수 및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환경협력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현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조경수 사업 등 관련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산림협력의 한계 및 과제

남북산림협력에는 몇 가지 한계가 발견되었다. 우선,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며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산림협력은 일회적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산림협력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산림보호를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빈곤감축, 식량안보 확보 등의 인도적 의제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산림협력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산림협력에서의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남북산림협력의 향후 발전방향은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산림에 대한 북한의 인식, 남북산림협력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산림협력은 다른 분야 환경협력과 달리 최근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높은 관심으로부터 기인하였다. 그러나 남북산림협력은 수 차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남북산림협력은 일회적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남북산림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산림협력의 한계 및 과제를 도출했으며, 앞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의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태근 외, 2018,『한반도 보호지역 기초자료 구축연구』, 『국립공원연구원 보고서』

송정환, 2020,『김정은 시대 특수경제지대 법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윤철남 외,『2019, 우리나라 생물권보호구』, 과학백과사전출판, 2019

FAO(2019). 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Mechanism. Rome: FAO.

Sida(2016).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Secure Food for a Growing World and end Hunger. Stockholm: Sida.

UN(2019). GLOBAL FOREST GOALS AND TARGETS OF THE UN STRATEGIC PLAN FOR FORESTS 2030. New York: UN.

SDC. “Nachhaltige Waldnutzung – Beitrag zu Klimaschutz und Armutsreduktion” Retrieved January 13, 2021, from https://www.eda.admin.ch/deza/de/home/themen/klimawandel/wald-und-landnutzung.html.